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어떤 사연

**수** 원과 수월은 이번의 뱃길에서 돌아온 뒤 한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들이 신도 임형지의 소유인 천수관(淺水灣)의 작은 무인도인 간월도(看月島)에 배를 댄 것은 전혀 우연이었다. 밀물이드는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섬들의 개울 위에 성를 나타난 그 섬이랄로 두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섬의 한쪽에 김승이 작은 못배 한 척 정도가 들어가는 물길이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배를 댄 뒤 아주 조심스럽게 섬으로 올라갔다.

해송이 저희들끼리 서로 예의싸고 있는 것처럼 모여서 뻗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받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바다 위 보다 한결 안온하였다. 마치 방금 누군가가 앉아있다가 떠난 자리처럼.

위나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완장에 돌아올 정도의 작은 섬이기는 하나 어디지 모르게 신령스러웠다. 해송을 울고 가는 바람소리도 많은 흔적이 때를 이루어 머물다가 달려가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수월이 더 긴장하였다.

"무슨 짐승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수월은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이런 꼬마들이 섬에 짐승은 무슨 짐승이겠어... 밭물 때 개들이나 개를 돌아다니는 것 말고는..."

"그만 떠나세."

"그래서."

두 사람이 발바닥을 댄 것처럼 걸음을 재촉해서 배에 탔다.

그들은 배의 한쪽이 개울에 박힌 것을 식대를 잡아 빼어낸 뒤 배가 물에 띄었을 때 분명히 섬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소리였다.

수월이 돌아다보았다. 소나무 그늘 속으로 어떤 자취가 숨어버리는 것이었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문수보살이 아닌가? 문수동자(文殊童子) 말이네."

는 웃는 인사를 하지만 그의 뒤에서는 '아전님' '아전님'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파를 이었는데 높은 마당에 이채(異彩)의 수원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반면 다 자란 자식을 두 놓이 잇달아 급사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저승 장사라 귀신이 붙어서 그렇지"라는 소리도 들어야 하였다.

그는 부인의 말을 들었다. "결에 시주를 할 일입니다"

두 아들을 출자가 잃은 어머니로서 그녀는 이미 꽤 정신이 아니게 실성(失性)의 형색이 역력하였다. 그녀는 혼자 열물을 하기도 하고 타령을 부르기도 하였다. 때



### 수미산

한해를 넘기고 나자 이번에는 임씨가 두 아들을 잃은 비탄이 깊어져서 부인 대신 열물을 흘려내거나 타령을 중얼거렸다.

그런 뒤 그는 무욕도에 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푸짐한 시물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형지 일가의 누구도 아직 무욕

사람이 그 오락살이로 찾아가 아직 두 이레도 되지 않은 간난이기의 어머니를 큰 소리로 저주하였다.

"이 더러운 년이 더러운 씨를 받아 우리 양반촌의 양속(良俗)을 더럽혔으니... 내 년과 내 새끼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로다!"



## 청상과부는 그가 낳은 아기를 큰 개천에 던져버리고...

이런 의문이 생겨났지만 그들이 탄 배는 더 이상의 해탈을 할 수 없으므로 뿔뿔을 찢고 버림을 안았다.

이 서해는 거의 동풍이 없었다. 한 여를의 남풍을 제외하면 거의 중국 대륙에서 건너오는 편서풍이기 십상이다. 심지어 겨울의 서북풍도 그것은 북풍이기보다 서풍이었다.

이런 바람을 받아 서산파의 등포에 다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신도 임씨는 안면도 독자 일부를 폭풍 발해해서 그것을 해상과 육로를 통해 경기 호남알대에 공급함으로써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다. 본디 아전출신이라 그의 앞에서

도 거르기 일수였다.

"밥? 너더러 사자밥을 먹으라 말인가?"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밥을 먹게하려는 식구들을 물리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임형지가 부자가 된 뒤 얻어온 기녀 출신의 아름다운 소실녀가 달려와 지극한 간호를 하는 것에 힘입어 조금씩 실성기운에도 차도(差度)가 생겨났던 것이다.

남편은 두 사람의 여인이 서로 의가 좋은 것만이 대견하였다. 사약을 본 본부인도 소실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소실도 정실을 께웃이 섬기고 있었다.

도에 건너간 적이 없었다. 오직 집안에 의탁하고 있는 때들이 상노(常奴)기 충성스러운 노복 노릇을 하던 중 그들이 바리바리 지고 뺨갈까지 도모한 것이었다.

런데 두 아들이 죽은 뒤 4백14일이 되는 날 한 마을의 가난한 오막살이 청상과부가 딸을 낳았다.

"이런 번이 있나! 과부네이 아이를 낳다니! 그래 마을 여관네들은 그년이 아이 뱃줄도 볼랐던가!"

"그년이 몇달동안 집을 나가 타쳐를 떠돌다 방중에 돌아왔는지 뭐가."

마을 남장네들이 이 부정한 사연에 대해서 한두마디씩 보태는 중에 마을 아나 한

이런 저주에 안사 아기가 마치 서너살이나 먹은 것처럼 '엄마'라는 말과 달발에 '달'이라는 말도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산모는 그녀가 낳은 아기가 장차 큰 환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마당인데 마을 부녀자들이 이따금 문 밖에 다가가 몇 마디씩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다.

과부는 아이를 뱃 동안 밤에는 달빛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방안에서도 휘영청 밝은 달빛으로 환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배고 있는 아이가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되리라는 사실

을.

"아기장수가 내 배 안에 든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8도의 어느 고을에도 아기장수의 설화가 퍼져 있다. 어린 아기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자라나서 곧 하늘을 날게 될 즈음 임금이 보낸 장교에 의해 살상이 수색당한 나머지 동굴 속의 그 아기장수가 달아나기 직전에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설화가 그것이다.

어쨌거나 그녀는 아이뱃 물을 칠갑산 산골에 숨겨 지내다가 산월(産月)이 가까워지자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돌아왔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어떤 계사가 있었다. 꿈 속에서 그녀의 몸에 씨를 넣어준 백발의 노인이었다.

"이 골짜기는 짐승이 나고 죽는 곳이니 어서 마을로 돌아갑시다. 그대가 살던

있었다. 그녀는 막힌 젖을 마구 문질러냈다. 한참 뒤에 젖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안아 먹어라. 네 예미의 젖이란다."

아기는 '엄마'라고 말한 뒤 젖을 신나게 빨아냈다.

어미와 간난이기 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바로 이 기구한 모녀가 마을을 떠나서 서산장터를 여기저기 거웃거리고 있을 때 임형지 일행의 눈에 띈 것이었다.

"저 저지년을 데려가자."

이렇게 해서 어미와 간난이기는 갑자기 벼락부자네 별채에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자네는 알 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 첫 질문에 그녀는 대답을 거부하고 있었다.

"밝히지 않아도 좋아... 다만 아이를 찾

"난리가 나!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섬이 가라앉고 물기둥이 솟아올라" 바로 이런 소리를 서슴치 않고 내뱉는 아이의 소문이 무욕도까지 전해지자 우녀가 이 소문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을로."

이 한 마디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고는 꿈 속의 노인은 사라졌다.

지만 이제 마을에서는 과부가 아이를 낳은 일 때문에 흉산 난리라고 난 것처럼 그 백년동안이나 잠든 것 같은 마을의 여기 저기서 사람들의 저주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산모는 그녀가 낳은 아기를 마을 앞의 제법 큰 개천에 던져버리고 돌아서버렸다. '엄마!'라는 소리가 '종!'하고 물 속에 던져지는 소리 직후에 들렸으나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오나, 나도 끝내 뒤를 따라갈테다."라는 피어린 맹세만 하는 것이었다. 그녀로서는 백발노인을 좀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죽인 그녀 자신이야말로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깊이 자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아기를 뱃에 안긴 사육 뒤에 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는데 머리를 쭈뼛처럼 그 물가에 가보았다.

"아름사! 우리 아기!"

아기가 던져진 곳에서 저만큼 물결이 감도는 곳에 걸려 물가의 풀밭에 있는 것이었다. 살아있었다. 들짐승이 후다닥 달려왔다.

그녀의 뒤살이난 정신으로 그 들짐승이 이제까지 아기를 보살핀 것임을 알았다. 들짐승이 여유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부여 안았다. 아픈 젖은 마구 육신거릴 뿐 젖을 내지 못한 채 막혀

으러 오지는 않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로 모녀는 임형지네 식구가 되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미는 침지의 셋째 마누라가 되어버렸고 아기에게도 의붓아버지가 생겨난 것이다.

과연 임형지는 본부인이나 소실을 찾는 일이 전혀 없었다.

오로지 이 근본 없는 셋째마누라의 방에 서만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침자는 환강을 넘기고도 정정하였다. 셋째마누라는 그녀의 거지행색을 벗어나자 빛무리가 서린 미모로 빛나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때 늦은 곰술도 드문 일 이거나와 지라는 어린 딸이 더 놀라운 대 상이었다.

"난리가 나! 난리가 나!"

라고 아이가 말하며 공공 앓았다.

"무슨 난리가 난단 말이냐?"

"난리가 나!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섬이 가라앉고 물기둥이 솟아올라."

바로 이런 소리를 서슴치 않고 내뱉는 아이의 소문이 무욕도까지 전해진 것이다. 우녀가 이 소문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내가 건너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녀가 인담에게 말하였다. 인담도 마치 5조 흥인의 설화와 비슷하게 된 그 소문을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림 · 조항숙

### 8년 성상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

실크로드 여행사 창립 8주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보에 귀의하옵고 1987년에 설립한 저희 실크로드 여행사도 어느덧 8년의 세월을 더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임직원 모두는 향하는 곳마다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되게 하려는 자세로 사부대중을 섬겨 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에 주신 여러 스님과 신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알일이 찾아 받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이오나 "부처님께 회향"하는 자세로 더욱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원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작으나마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년도 불교대력을 보급하고자 하오니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5 가을 불교성지순례대행정을 간략하게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출발 ₩ 1,380,000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천하제일 명산인 황산 등

서울→상해→소주→남경→구화산→황산→상주→천태산 국정사→영파→보타산→상해→서울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성지순례는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0-9600

### 불교간판의 대명사

## 절, 찾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귀의삼보하옵고 그동안 성원하여주신 사부대중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찰 이정표 제작 시공 이후 전국의 1,000여 사찰이 저희 가람제품을 애용하시어 이번 명실공히 통일된 사찰 이정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사찰 이정표 제품 선정에 방심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지금 전화 주시면 통일된 사찰 이정표는 최고의 품질과 현대감각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사찰을 찾는 이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운데 말 없는 포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값진 일꾼입니다.

• 시공, 설치까지 완벽하게 하여드립니다.  
• 전화문의 주시면 즉시 달려가 상담하여 드립니다.  
• 본 제품은 1년간 무료A/S를 하여 드립니다.

가람기획 전화: (02)720-5121, 720-2874 팩스: (02)732-3769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40 경흥B/D 211호 대표 이주영 합장